

# 보육시설 영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 성, 연령,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보육경험을 중심으로 -

## Toddler's Aggressive Behavior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엄성애  
교수 박성연

Dept. of Consumer Science &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Graduate Student : Um, Sung Ai

Prof. : Park, Sung Yun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antecedent variables associated with variability in toddler's aggressive behavior. The subjects were 182 toddlers(101 boys and 81 girls) and their mothers. Data were collected via questionnair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aggression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oddler age, but not with gender. Mother's parenting was related to boy's aggression, whereas both temperament and parenting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girls' aggressive behavior. However, day-care variables were not th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oddler's aggression. Second,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e interaction effect of child temperament and parenting, after controlling for main effects.

**주제어(Key Words):** 영유아(Toddler), 공격성(Aggressive Behavior), 기질(Temperament),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 1. 서론

영유아기는 인성, 사회성 및 인지적 능력과 같은 모든 발달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결정적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부정적인 발달특성 또한 영유아기로부터

시작된다(Hay & Ross, 1982). 영유아기 공격성도 아동 및 청소년기 공격성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기질과 환경의 영향에 의해 나타나는데, 특히 최근에는 기질과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발달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Kochanska, 1997). 따라서 영유아기 공격성에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를 보다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환경과 영유아 기질 각각의 영향 뿐 아니라 각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유아기 공격성의 원인을 밝힐 수 있다면, 문제 행동을 미리 중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반사회적 행동을 줄이는 보다 근본적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격성에 대한 정의는 '의도성'과 '타인에 대한 상해'가 핵심이므로, Kagan(1974)이 주장한 바와 같이, 타인에게 해를 입히려는 정신적인 '의도'를 갖기 전인 만 2세 이전에는 공격성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왔다. 그러나 24개월 전후의 영유아 공격성을 연구한 Rubin, Hastings, Chen, Stewart와 McNichol(1998)은 24개월경 영유아에게서 의도성이 나타난다고 보고, 의도성의 개념을 포함하여 '다른 영유아에 대한 위협이나 상해를 입히려는 행동'이라 정의한 바 있다. 한편 공격성연구의 대표적 학자인 Tremblay(2000)는 비록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의 물건을 빼앗길 때 나타내는 공격적인 반응이 공격적인 행동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영유아의 공격성이 유아나 학령기 아동에 비해 훨씬 적게 나타나고(Coie & Dodge, 1998) 의도성이나 심각성이 적다고 하더라도(Tremblay, 2000), 다른 아이가 가진 장난감을 가지려는 행동과 같이 경쟁적인 목표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갈등유발 형태의 공격적인 행동은 이 시기에도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다(Hay & Ross, 1982). 따라서 만 2세 이전의 영유아가 의도성을 가지는 공격성을 나타내지 않을지라도, 반응적인 형태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공격성을 나타낸다면, 이러한 행동을 영유아 공격성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체로 영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는 보육현장의 맥락 안에서 문제행동의 범주로 다루어왔다. 부모와의 갈등이 많아지는 '미운 세 살' 걸음마기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보고하는 문제행동은 떼쓰기, 화내기, 음식 거부, 이유 없이 칭얼거리기 등으로 공격성이 포함되지 않는데 반해(Achenbach, 1987), 보육교사가 보고하는 영유아의 문제행동에서는 공격성이 주된 문제행동으로 나타났다(윤주화, 이종희, 1999). 윤주화와 이종희(1999)의 연구에 의하면, 영유아의 공격성은 보육현장에서 다른 문제행동에 비해 발생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교사가 가장 어렵다고 지각하는 문제행동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공격성은 가정에서보다 보육상황에서 더욱 문제시되는 행동임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공격성은 남아에게 두드러지는 특성으로 보고되었다(정현희, 최경순, 2001; Hyde, 1984). 유아기로부터 아동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

내었는데, 영유아에게 있어서도 남아가 여아보다 더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는 보고가 있다(Rubin *et al.*, 1998). 그러나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된 윤주화와 이종희(1999)의 연구에서는 공격성 정도는 성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이라는 환경의 영향으로 여아라 할지라도 남아와 마찬가지로 공격성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실제로 유아 및 아동기와 달리 영유아기에는 공격성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여러 각도에서 영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성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공격성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유아 및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까지 신체적인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결과(Elliot, 1994)를 토대로, 연령에 따라 공격성이 증가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걸음마기에 긍정적인 행동 뿐 아니라 깨물기와 머리 잡아당기기 등의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함께 증가한다는 보고는 이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Parke & Slaby, 1983). 이와 반대로, 아동은 사회화를 통해 덜 심각하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공격성을 표현하게 된다는 설명(Tremblay, 2000)은 영유아의 신체적 공격성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걸음마기 이후 사회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본능적인 충동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 공격성이 감소될 수 있다. 또한 언어적 표현이 높은 영유아가 신체적인 공격성을 적게 나타낸다는 결과(Dionne, Tremblay, Boivin, Laplante, & P. russe, 2003)에 비추어 볼 때, 언어발달에 따라 영유아의 신체적인 공격성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에는 문제행동을 예언하는데 있어 기질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러 가지 기질적 측면 중에서도 활동성이 유아 및 아동의 공격성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임희수, 박성연, 2002; Russel, Hart, Robinson, & Olsen, 2003), 정서성 또한 적대-공격행동과 같은 문제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정현희, 최경순, 2001). 그러나 Kochanska(1993)는 기질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걸음마기까지로 한정되며, 이후 성장에 따라 환경의 영향과 상호작용의 효과로 대체된다고 하였다. 결국 기질과 환경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아동의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행동발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양육행동은 아동발달에 있어 문제행동의 주된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청소년기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어머니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인들 중 양육행동은 양육신념이나 부부간 공격성을 통한 모델링의 효과보다 더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었다(Capaldi & Clark, 1998). 아버지와 학령기에 있는 아들 간 공격성의 세대간 전이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공격성 자체 보다 공격성을 조장하는 양육행동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박성연, 2002) 공격성 발달에 있어서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공격성을 조장하는 양육행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의 대부분을 포함하는데, 냉정하며 거부적인 태도(Hart, Dewolf, Wozniak & Burts, 1992), 심리적인 통제(Hart, Nelson, Robinson, Olson, & Mcneilly-Chque, 1998), 어머니의 거부와 통제적 양육행동(임희수, 박성연, 2002)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공격성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도 기질과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효과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 공격성에 관한 연구 중에는 상호작용 효과를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다만 Rubin과 그의 동료들(1998)의 연구가 영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기질과 양육의 상호작용 효과를 파악한 유일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양육행동 자체는 공격성을 예측할 수 없지만, 기질의 한 측면인 정서조절 능력과 결합하여서는 공격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의 낮은 정서조절 능력과 부정적 양육행동이 결합하여 공격적인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남아는 여아보다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에 의해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상관성이 크게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낮은 정서조절 능력이 공격성으로 발달되는 데 있어서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이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중요한 변인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영유아 보육이 확대되면서 영유아기 보육경험이 이후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특히 걸음마기 아동의 공격성은 주로 보육 현장에서 사회성 발달 및 문제행동의 범주로 다루어졌다. 초반의 연구들은 보육경험 자체가 영유아에게 주는 영향을 살펴해보았으나(Belsky, 1984; Haskins, 1985), 연구마다 보육경험의 효과가 비일관적으로 나타나면서 보육과 관련된 변인들, 예를 들면 주당 보육시간(Belsky, 2001), 보육 시작시기 및 보육 안정성(NICHHD, 1999) 등과 같은 구조적인 변인에 따라 아동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밝히는 것으로 그 내용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 중 분명한 경향을 정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결과들은 보육의 부정적인 영향이 보육과 관련된 하위 요인들의 질에 의해 중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환경의 여러 가지 질적인 변인들 중 공격성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교사행동의 질적 수준(곽주영, 이영, 1997), 교사 대 아동 비율과 교사와 유아의 언어적 상호작용(Phillips, McCartney, & Scarr, 1987)과 같은 특징이 공격적 행동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유아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위의 결과는 영유아의 공격성에도 적용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더욱이 Belsky(1997)의 연구를 통해, 보육 현장에서의 경험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상호작용하여 영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고찰을 종합해 보면 영유아기의 공격적 행동은 후의 문제행동이나 공격성을 예측하게 하는 중요한 행동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된 바가 적으며, 이와 관련된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공격성에 미치는 성, 연령, 기질, 양육행동 및 보육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유아의 성, 연령,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보육경험 및 보육시설의 질은 영유아의 공격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영유아의 성에 따라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보육경험 및 보육시설의 질이 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 1) 남아의 공격성에 대한 기질과 양육행동의 상대적인 영향력과 상호작용 효과는 어떠한가?
- 2) 여아의 공격성에 대한 기질과 양육행동의 상대적인 영향력과 상호작용 효과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보육경험이 있는 19~36개월 영유아의 어머니 182명이었다. 연구대상 영유아는 여아 81명(44.5%), 남아 101명(55.5%)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9개월이었다. 19~24개월이 41명(22.5%), 25~30개월이 61명(33.5%), 31~36개월이 80명(44.0%)으로 고르게 분포되었다. 연구대상 영유아의 부모관련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2.9세, 아버지는 35.2세였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은 전문대학 및 대학 졸업이 대상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한편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약 52%, 어머니의 약 42%가 회사원, 교사 등의 직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150~250만원이 25%, 250~350만원이 27%, 350~450만원이 20%로 나타나 2002년 4/4분기 도시 가계소득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803,533인 것에 근거할 때(통계청, 2002), 본 연구 대상자들의 소득수준이 중류정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보육과 관련된 변인을 살펴보면, 보육을 시작한 시기는 0~6개월이 약 39%로 가장 많았고, 또한 보육경험 전 기간 동안 주당 보육시간은 주당 30~60시간(하루 5~10시

간)이 61.0%로 가장 많았다. 보육시설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한 곳을 이용하는 경우가 약 57%, 현재의 보육시설 이용 시간은 30~60시간(하루 5~10시간)이 약 63%로 가장 많았고, 응답자의 60%(109명)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민간보육시설 이용이 44명(24.2%), 가정탁아 이용이 29명(15.9%)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는 영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보육시설의 이용 형태에 관련된 질문과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질에 대한 평가 및 영유아의 공격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질문지는 어머니가 응답하였다.

### 1) 영유아의 기질

영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Goldsmith(1992)가 개발한 'The Toddler Behavior Assessment Questionnaire (TBAQ)'에서 정서성, 사회성, 활동성, 사회적 두려움과 관련된 4영역의 18문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네 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나 '사회적 두려움' 요인에 해당하는 세 문항은 신뢰도가 낮아서 제외시켰으며, 남은 세 요인만을 사용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문항들 중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두 가지 문항을 제외시키고 총 13문항이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로부터 '항상 그렇다(5)'에 이르는 5점 Likert 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범주에 해당하는 기질이 강한 것을 말한다. '정서성'은 아동의 긍정적 정서의 정도를 나타내는 내용이며, '활동성'은 아이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활동성 수준을, '사회성'은 아동이 새로운 상황이나 사람에게 얼마나 쉽게 접근하고 친숙해지는가를 나타낸다.

###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선행연구에서 영유아를 둔 어머니들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4가지 범주의 양육행동, 즉 거부, 통제, 과보호, 반응성을 정하고 Park, Belsky, Crinic과 Putnam(1997) 및 이미정(1998)의 연구를 참고로 29문항을 작성하였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5점 Likert식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범주에 해당하는 양육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 개의 요인이 확인되었으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3문항을 제외하고 최종 26문항을 사용하였다. '거부'는 자녀에게 거부적이고 비난하며 귀찮아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통제'는 아동의 흥미나 능력에 관계없이 양육자의 기준에 맞추도록 제한, 간섭, 지시하는 태도이다. '반응성'은 자녀가 나타내는 신호를 잘 지각하여 정확히 해석하고 이에 대해 적절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과보호'는 아동의 독립적인 행동을 막고 의존

성을 조장하는 양육행동으로 아동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나 뒷바라지를 나타낸다.

### 3) 보육경험 관련 변인 및 보육시설의 질

본 연구에 사용된 보육에 관한 질문은 크게 두 가지를 포함한다. 한 가지는 보육경험에 관련된 변인으로 보육을 시작한 시기, 현재의 주당 보육 이용시간, 보육기관의 변경횟수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또 다른 변인은 보육환경의 전반적인 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Miller의 척도에 기초한 박성연, 임미리(2002)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5가지 영역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결과 '물리적 환경'과 '건강과 안전' 요인이 하나로 나타나서 이 두 요인을 '보육환경의 질'로 묶어 4가지 영역 또는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가 낮은 4문항을 제외하고 총 2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된 환경의 질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4개 요인 중 '보육환경의 질'은 보육시설의 공간과 비품이 아동에게 알맞으며 청결하고 안전하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질'은 아동의 하루 일과 내용과 교육내용, 교육환경을 말한다. '부모와 협력의 질'은 교사와 부모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며, '교사-아동간 상호작용의 질'은 교사가 아동을 대하는 태도와 아동과의 관계를 말한다.

### 4) 공격성

본 연구는 보육현장에서 영유아가 나타내는 문제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sup>1)</sup>중 공격성과 관련된 3개의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공격성'은 '친구들과 싸운다',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못살게 군다', '친구들을 발로 차거나 때리거나 깨물기도 한다'의 3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영아의 행동적인 공격성을 나타내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점수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항상 그렇다'까지의 Likert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각 척도의 문항 수와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 3. 자료수집 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서울시내의 각 지역과 경기도 신도시 지역의 어린이집 및 놀이방 18곳을 통해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질문지 200부를 배포하였고, 소아과 병원 등에서 만난 어머니 121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의뢰하였다. 최종 회수된 질문지 299부 중 일부 자료가 미비

1) 박성연, 고은주(2004). 보육경험과 아동특성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2), 23-35 참고.

〈표 1〉 보육시설의 질 척도의 요인별 문항 및 신뢰도

		문항수	$\alpha$
영유아의 기질	정서성	5	.78
	활동성	4	.73
	사회성	4	.74
어머니의 양육행동	거부	8	.81
	통제	5	.82
	반응성	7	.75
	과보호	6	.79
보육시설의 질	보육환경의 질	8	.89
	교육과정의 질	7	.86
	부모와 협력의 질	5	.81
	교사 상호작용의 질	4	.90
영유아의 행동	공격성	3	.76

한 질문지나 연구대상 연령인 19~36개월에 부합되지 않는 질문지를 제외하고 182부 만을 연구문제 분석에 사용하였다<sup>2)</sup>.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를 분석에는 SPSS 11 program을 사용하였다. 기초 분석 및 도구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요인분석, 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서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하고, 성별과 연령 집단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 검증을 위해 t검증 및 일원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각 예측 변인들의 영향력과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귀분석 결과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온 변인들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변인 각각에 대해 평균을 중심으로 상하 집단을 구분한 후 조합하여, 전체 네 집단간의 평균을 비교하는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유의도는  $p < .05$  이하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 III. 연구결과

기초 분석결과 공격성의 평균은 5점 척도에서 2.21로 나타나 본 연구에 참여한 영유아의 공격적 행동이 자주 나타나는 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 보고에 따른 영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성에 따른 변인별 평균의 차를 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변인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보육환경의 질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 = -2.73, p < .01$ ). 한편,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 영유아의 연령을 6개월 단위로 구분하여 각 변인에 대한 집단별 평균과 일원변량 분석의 F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영유아의 공격성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어, 영유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높게( $F = 3.08, p < .05$ ), 영유아의 공격성은 낮게 나타났( $F = 8.71, p < .001$ ).

#### 1. 영유아의 성, 연령,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보육경험 및 보육시설의 질과 영유아의 공격성간의 관계

연구문제 1의 분석을 위해 전체아동 및 남녀 아동 각각을 대상으로 공격성과 모든 연구변인들 간의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표 2〉에서 보듯이 전체 연구대상에서는 영유아의 연령이 공격성과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기질 중 활동성이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행동에서는 거부와 통제가 공격성과 정적 상관을, 반응성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거부와 통제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반응성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보육과 관련된 변인에서는 어떤 변인도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아의 공격성은 양육행동과만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어, 거부, 통제와는 정적 상관을, 반응성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반면, 여아의 경우는 남아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아의 공격성은 연령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기질 중 활동성과 사회성이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육행동에서는 거부와 통제만이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남아는 양육행동만이 공격성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여아는 양육행동 뿐 아니라 연령과 기질도 공격성과 상관관계

〈표 2〉 영유아의 성, 연령,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보육관련 변인과 영유아의 공격성 간의 Pearson 상관관계

	공격성		
	남아(n=101)	여아(n=81)	전체(n=182)
영유아의 성			-.12
영유아 개월수	-.19	-.27*	-.22**
아동의 기질			
정서성	.03	-.04	.00
활동성	.13	.35***	.25***
사회성	-.08	.25*	.09
어머니의 양육행동			
거부적	.32***	.43***	.37***
통제적	.24*	.31***	.27***
반응적	-.28**	-.03	-.18*
과보호적	-.09	.04	-.04
보육관련 변인			
보육 시작시기	-.06	.12	.02
주당 탁아시간	-.01	.12	-.01
보육 변경횟수	.04	-.11	-.04
환경의 질	.12	-.02	.04
교육과정의 질	.07	-.09	-.00
부모와 협력의 질	.18	.01	.10
교사의 질	-.11	-.12	-.12

\* $p < .05$ , \*\* $p < .01$ , \*\*\* $p < .001$

2) 본 연구는 학술진흥재단의 후원을 받아 수행된 영유아보육연구 프로젝트 자료 중 일부를 사용하여 수행된 연구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육관련 변인의 경우는 전체에서 뿐 아니라 남, 여아 각각에서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2. 남아와 여아의 공격성에 대한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상대적인 영향력 및 상호작용 효과

연구문제 2로 영유아의 성에 따른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보육경험 및 보육시설의 질이 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과 각 변인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상관관계 분석결과 보육과 관련된 변인은 영유아의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문제 2의 분석 내용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공격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영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선택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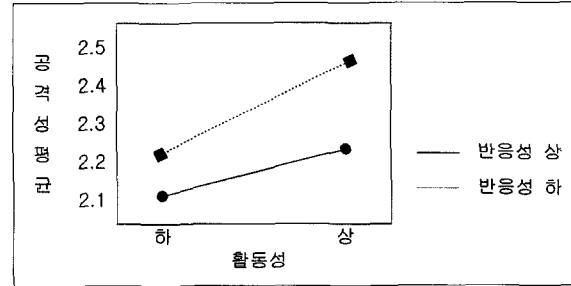
기초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영유아의 성별에 따라서 공격성 값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변인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므로 연구문제에서 계획한 대로 성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분석에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난 기질 중 활동성과 양육행동 중 거부, 통제, 반응성은 남녀 각각에 모두 사용하였으며, 여아의 경우는 연령과 사회성 기질도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변인으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난 연령은 회귀식에서 Dummy 변수로 처리하여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양육행동의 세 가지 변인 모두를 회귀식에 투입하는 대신, 자유도를 고려하여 어머니의 거부, 통제, 반응성 각각을 따로 회귀식에 넣어 성별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분석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각 양육행동과 기질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였다.

1) 남아의 공격성에 대한 기질과 양육행동의 상대적인 영향력과 상호작용 효과

우선 첫 단계에 활동성 기질을 투입하고, 두 번째 단계에는 회귀분석 모델별로 어머니의 거부, 통제, 반응성의 각 양육행동을 투입하였으며, 마지막에는 각 양육행동과 기질의 상호작용을 투입하였다. 각 회귀분석에서 남아의 공격성에 대한 양육행동의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질은 그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활동성 기질과 거부적 양육행동의 회귀 분석 결과, 활동성 기질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이 아니었으며 거부적인 양육행동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R^2=.11, p<.001$ ). 한편, 활동성 기질과 통제적 양육행동을 투입하였을 때는 전체 모델이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활동성 기질과 어머니의 반응성의 경우는 유의한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었다 ( $F=6.42, P<.001$ )(<표 3> 참조). 즉, 어머니의 반응성은 보다 중요한 예측력을 나타내었으며 ( $R^2=.11, p<.001$ ) 그 다음

<표 3> 남아의 공격성에 대한 기질(활동성)과 양육행동(반응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공격성		
	$\Delta R^2$	p<	$\beta$
1. 기질: 활동성	.02	ns	.13
2. 양육행동: 반응성	.11	<.001	-.34
3. 활동성×반응성	.04	<.05	-1.77
$R^2$	.17		
최종 F (df)	6.42(3,97)		
p<	<.001		



<그림 1> 남아의 공격성에 대한 기질(활동성)과 양육행동(반응성)의 상호작용 효과

로 어머니의 반응성과 남아의 기질 중 활동성이 상호작용하여 공격성을 예측하였다( $R^2=.04, p<.05$ ). 이에 대해 남아의 활동성 기질과 어머니의 반응성을 각각 평균점수를 중심으로 하여 상하집단으로 나누고, 두 집단의 경우를 조합하여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네 집단 각각의 공격성 평균을 비교하였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어머니의 반응성이 낮은 집단이 반응성이 높은 집단보다 공격성이 높았으며, 또한 활동성이 높은 영유아들은 활동성이 낮은 영유아들에 비해 공격성이 높았다. 따라서 활동성이 높은 영유아에게 어머니의 반응성이 낮을 때, 공격성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여아의 공격성에 대한 기질과 양육행동의 상대적인 영향력과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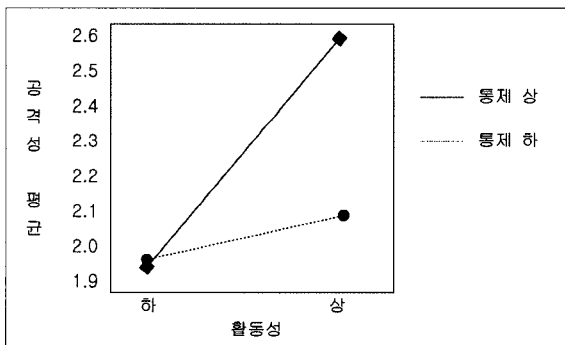
여아의 공격성에 대한 기질과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보기 위해, 여아의 공격성 상관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을 고려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연령을 첫 단계에 넣어 통제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질 중 활동성과 사회성을, 세 번째 단계에서는 양육행동을 투입하여 각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마지막 단계에서 활동성 기질과 양육행동, 사회성 기질과 양육행동을 변인으로 투입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남아에서와 같이 양육행동은 거부, 통제, 반응성에 따라 각각 따로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각 변인의 영향력이 남아의 경우보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우선 활동성 및 사회성 기질과( $R^2=.12, p<.01$ ) 거부적 양육행동( $R^2=.17, p<.001$ )은 공격성을 예측하는 변인이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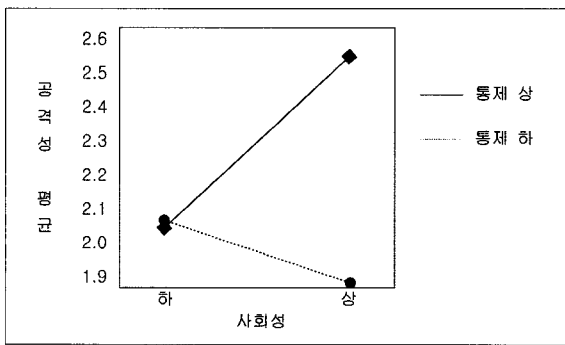
〈표 4〉 여아의 공격성에 대한 기질(활동성, 사회성)과 양육행동(통제)의 위계적 회귀분석

	공격성		
	$\Delta R^2$	p<	$\beta$
1. 개월수 25~30개월 31~36개월	.08	<.05	.02 -.27
2. 기질 활동성 사회성	.12	<.01	.29 .10
3. 양육행동: 통제	.06	<.05	.25
4. 기질×양육행동 활동성×통제 사회성×통제	.06	<.05	1.4 .71
$R^2$ 최종 F (df) p<	.32 4.74(7,72) <.001		

주) 개월수는 Dummy 변수로 처리하였음.



〈그림 2〉 여아의 공격성에 대한 기질(활동성)과 양육행동(통제)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3〉 여아의 공격성에 대한 기질(사회성)과 양육행동(통제)의 상호작용 효과

이 중 거부적 양육행동은 가장 예측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통제적 양육행동을 예측변인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각 변인들이 유의한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었다 (F=4.74, P<.001) (〈표 4〉 참조). 즉, 기질은 가장 중요한 예측력을 나타내었으며 ( $R^2=.12$ , p<.01) 그 다음으로 어머니의 통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R^2=.06$ , p<.05). 또한 활동성 및 사회성 기질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상호작용하여 공격성을 예측하였다( $R^2=.06$ , p<.05).

이에 대해 평균을 중심으로 활동성 기질 상하집단과 통제적 양육행동 상하집단을 구분하고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각각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네 집단간의 공격성 평균을 비교하였고, 같은 방식으로 사회성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영향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그림 2〉를 보면, 활동성이 낮은 집단은 통제에 따라 공격성에 차이가 없었으나, 활동성이 높은 경우는 어머니의 통제에 따라 공격성의 차이가 커서, 영유아의 활동성과 어머니의 통제, 두 변인의 값이 모두 높은 경우 공격성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사회성 기질이 높은 경우, 어머니의 통제가 높으면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특히 사회성은 어머니에 의한 통제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즉 사회성이 높은 경우 어머니의 통제가 높으면 공격성이 증가하나, 어머니의 통제가 낮은 경우는 오히려 공격성이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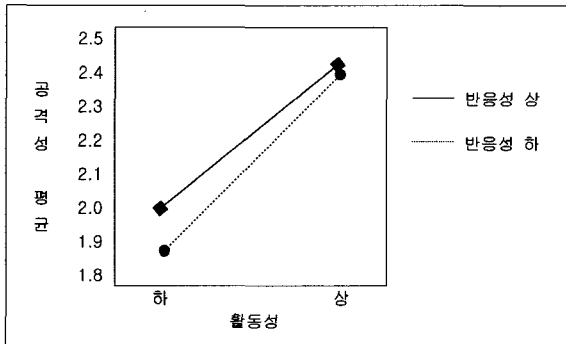
이외에 어머니의 반응성을 예측변인으로 하였을 경우에도, 유의한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었다(F=3.88, P<.001). 즉, 〈표 5〉에서 보듯이 기질은 중요한 예측력을 나타내었으며 ( $R^2=.12$ , p<.01) 그 다음으로 어머니의 반응성과 기질이 상호작용하여 공격성을 예측하였다( $R^2=.06$ , p<.05). 이에 대해 활동성 기질 상하 집단과 각각에 대한 반응적 양육행동 상하집단을 구분하여 네 집단의 공격성 평균을 비교하는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회성 상하집단에 대해서도 반응적 양육행동 상하집단을 구분하여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그림 4〉에서 보듯이, 활동성이 높으면 어머니의 반응성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공격성이 높으나, 활동성이 낮으면 어머니의 반응성이 높을 때 공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림 5〉에서는 영유아의 사회성과 어머니의 반응성이 상호작용하여 공격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의 반응성이 높은 경우, 사회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공격성에도 차이가 없으나, 영유아의 사회성 기질이 높으면 공격성이 다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반응성이 낮은 경우는 사회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공격성의 차이가 커져서, 사회성이 높을 때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반응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는 영유아의 사회성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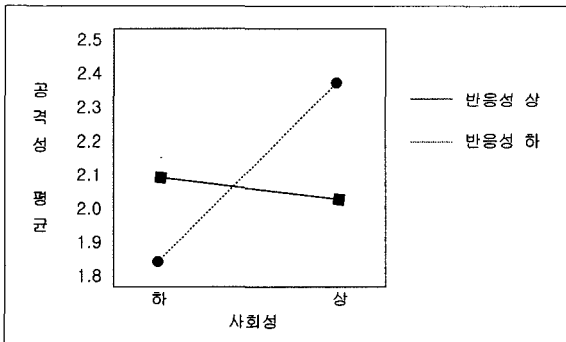
〈표 5〉 여아의 공격성에 대한 기질(활동성, 사회성)과 양육행동(반응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공격성		
	$\Delta R^2$	p<	$\beta$
1. 개월수 25~30개월 31~36개월	.08	<.05	.02 -.27
2. 기질: 활동성 활동성 사회성	.12	<.01	.29 .10
3. 양육행동: 반응성	.02	ns	-.13
4. 기질×양육행동 활동성×반응성 사회성×반응성	.06	<.05	-1.79 -.22
$R^2$	.27		
최종 F (df)	3.88(7,72)		
p<	<.001		

주) 개월수는 Dummy 변수로 처리하였음.



〈그림 4〉 여아의 공격성에 대한 기질(활동성)과 양육행동(반응성)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5〉 여아의 공격성에 대한 기질(사회성)과 양육행동(반응성)의 상호작용 효과

#### IV. 논의

본 연구는 생후 평균 29개월 된 남녀 영유아 182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 연령,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영유아기 보육경험과 보육시설의 질이 영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의 공격성은 성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 및 아동에게 공격성의 성차가 있다는 결과뿐만 아니라(정현희, 최경순, 2001; Hyde, 1984) 영유아기 공격성에 성차가 있다는 결과(Rubin *et al.*, 1998)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반면, 보육기관을 다니고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수행된 윤주화와 이종희(1999)의 연구와는 일치하고 있다. 윤주화와 이종희(1999)의 연구가 본 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보인 것은 이 두 연구가 보육경험 영유아를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경험이나 보육상황이 공격성에서의 성차를 적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기초분석에서 보육환경과 관련된 변인들 모두가 영유아의 공격성과 상관없이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볼 때, 생후 3년 이내의 보육 경험을 통해 공격성의 성차가 적어진다는 예측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따라서 영유아기 공격성에 성차가 없다는 것은 36개월까지는 공격성 발달에 있어 성별에 따른 생리적인 차이가 없으나 이후 환경의 영향을 통해 다르게 사회화된다는 논의들(Rubin *et al.*, 1998; Russel *et al.*, 2003)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의 성차가 나타나는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성차가 나타나기 이전에 그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영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서 영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성차가 지속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윤주화, 이종희(1999)의 연구는 교사의 보고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는 어머니 보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고려할 때, 객관적 관찰 자료를 통한 증거도 필요하리라 본다.

둘째, 연령에 따라서는 공격성에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격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19~24개월과 25~30개월의 영유아에 비해, 31~36개월의 영유아는 공격성에 있어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즉, 걸음마기 이후에 나타난다고 보고된 공격성은 30개월 이후에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인 공격성은 사회화와 함께 감소한다는 관점들(Tremblay, 2000)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체적 공격성은 연령 증가와 더불어 감소하나 관계적 공격성과 같은 간접적인 형태의 공격성은 증가한다(Tremblay, Boulerice, Harden, McDuff, Perusse, Pihl & Zoccolio, 1996)는 보고와 같이, 연령에 따라 감소된 영유아의 신체적 공격성이 다른 형태의 공격성으로 전환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본 연구가 어머니 보고에 의존한 연구임을 고려할 때 영아의 공격성에 대해 어머니가 점차 익숙해지기 때문에 있는 결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기질과 관련하여 볼 때, 기질은 공격성과 관련이 있었고, 성에 따라 관련되는 변인에 차이가 있었다. 우선 활동성이 공격성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였다(임희수, 박성연, 2002; Russel *et al.*, 2003).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성별에 따른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아의 공격성은 기질 중 어느 변인과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여아는 활동성과 사회성 기질이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가 오히려 기질과 공격성간의 상관이 높았다는 기존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Fagan, 1990). 남아의 공격성이 기질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남아의 고유한 다른 특성이나 경험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남아의 공격적성 발달이 기질 자체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여아에 비해 공격성이 수용되거나 오히려 강화되는 환경의 영향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Rubin *et al.*, 1998).

한편, 여아의 경우 기질 중 활동성 뿐 아니라 사회성이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영유아의 공격성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이 고려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아기 이후에 여아에게 관계적인 공격성이 보다 많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아의 공격성 발달이 영유아기에 이미 남아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신체적 공격성이 허용되지 않는 여아가 여아 사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적 관계를 공격성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Rubin과 그의 동료들(1998)의 논의와 같이, 사회적인 여아의 특성이 다른 환경 변인과 만날 경우 공격성으로 발달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행동, 특히 거부와 통제는 정적 상관관계가, 반응성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선행연구들을 지지하였다. 거부적 양육행동과 공격성간의 상관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으며(Hart *et al.*, 1992), 통제적 양육행동도 아동의 기질과 상호작용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Rubin *et al.*, 1998). 반응성과의 상관 또한 공격적인 아동의 부모가 반응성이 부족하다고 나온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Rubin, Stewart & Chen, 1996). 본 연구에서는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공격성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과보호가 공격성을 조장한다는 초등학생 대상의 연구 결과(임희수, 박성연, 2002)와는 다른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요인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양육행동과 공격성간의 관계는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남아의 경우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행동 모두가 영유아의 공격성과 상관이 있는 반면, 여아의

경우 부정적인 양육행동만 공격성과 상관을 보였다.

한편 양육행동이 공격성 발달에 유의한 주효과를 나타내어, Rubin과 그의 동료들(1998)의 연구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양육행동이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고 기질 및 성과 상호작용 하여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양육행동의 영향이 기질의 영향보다 이후에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Rubin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가 24개월 전후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행하여진데 반해, 본 연구의 대상은 19~36개월로 보다 다양한 연령의 영유아를 포함하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24개월 전후에는 양육자체의 영향이 거의 없으나, 이 이후 36개월까지는 양육행동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보육과 관련된 변인으로 시작시기, 보육시간, 보육 안정성은 공격성과 상관이 없었다. 이는 최근의 영유아 공격성 연구에서 보여주는 바와 일치하며(Rubin *et al.*, 1998) 초기 영유아 보육에 대한 위험 가능성을 보고했던 연구의 결과와는 상치된다고 할 수 있다. 보육의 질과 공격성이 전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보육과 관련된 요인 외에 다른 요인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보육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기질이나 양육행동에 비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영유아기 공격성은 보육환경의 요인보다 영유아 내적인 특성이나 양육행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또는 영유아기의 보육의 질이 유아 및 아동기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회고식 및 종단적 연구(Belsky, 2001; NICHD, 1999)의 결과임을 고려할 때, 영유아기 보육환경의 영향이 잠복되었다가 이후 유아기나 아동기에 나타날 수 있다는 장기적 효과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던 변인을 중심으로 영유아의 성별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우선 남아의 경우에는 기질보다 양육행동이 공격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그러나 여아의 경우에는, 기질과 양육행동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질과 양육의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나서 남아에 비해 공격성의 발달이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우선 통제와 기질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여아의 활동성이나 사회성이 낮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통제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가 적었다. 그러나 활동성이나 사회성이 높은 경우, 어머니의 통제가 높을 때 공격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기질에 따른 통제의 효과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반응성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활동성이 높은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반응성이 높은 것은 공격성이 높은 것과 상관이 있어서, 활동적 기질에 반응성이 높은 양육행동이 공격성을 줄이는 효

과를 나타낸 남아의 경우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특히 사회성이 높은 여아가 반응적이거나 통제가 낮은 어머니의 양육을 받을 경우에는 오히려 공격성이 낮아지므로 적응적인 발달을 기대할 수 있으나, 반응성이 낮고 통제적인 양육을 받을 경우에는 사회성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발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영유아의 성, 연령,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영유아의 공격성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었으며, 이 중 남아는 양육행동이, 여아는 기질과 양육행동이 중요한 예측변인이었다. 또한 기질과 양육의 영향은 상호작용하여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나타내었다. 남아의 경우는 양육행동의 효과가 주효과로 나타나며 활동성과 반응적 양육행동만이 상호작용 효과를 내고 있는데 반해 여아는 기질과 양육행동의 영향력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여아의 경우 사회성과 부정적인 양육행동의 상호작용이 두드러진 효과를 나타내어 공격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보육경험이나 보육환경의 질은 영유아기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한편, 영유아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영유아의 성, 연령, 기질과 같은 아동 자신의 특성과 함께 어머니의 양육행동, 보육경험 및 보육시설의 질과 같은 환경적 요인과 관련하여 영유아기의 공격성 발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특별히 영유아의 공격성에 대해 기질이나 보육환경에 비해 양육행동에 따른 영향력이 크다는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공격성 발달을 충분히 중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성차와 기질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함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중 남아의 공격성 발달이 여아와의 단순한 기질 차이가 아니라는 결과를 고려할 때, 남아의 공격성 증가의 원인이 전통적인 성역할 기대에 의한 암묵적인 공격성 허용과 같은 환경 탓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의 대상을 보육을 경험한 영유아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 영유아에게까지 일반화 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보육경험의 영향력이나 보육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보다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보육경험이 없는 영유아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 대상 아동의 공격성 점수가 다소 낮았던 점 역시 연구의 제한점이라 하겠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보고만을 자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영아의 공격성을 단편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제한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적인 관찰을 통한 후속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곽주영, 이 영(1997). 보육교사 행동의 질적 수준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35(2), 385-399.
- 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공격성간의 관계 및 세대간 전이. *아동학회지*, 23(5), 35-50.
- 박성연, 임미리(2002). 취업모의 직업관련 특성, 탁아기관의 질 및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57-68.
- 윤주화, 이종희(1999). 걸음마기 아동의 문제행동과 보육교사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2), 171-186.
- 임희수, 박성연(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 정현희, 최경순(2001). 아동의 기질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14.
- Achenbach, T. M. (1987). Empirically based assessment of the behavioral/emotional problems of 2-and 3-year ol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629-650.
- Belsky, J. (1984). "two waves of care research: developmental effects and conditions of quality" In R. C. Ainslie (Ed.), *the child and the day care setting*. New York: Praeger.
- Belsky, J. (1997). The Effects of Non-maternal Care on Child Development. *아동학회 추계워크샵 자료집*, 1-5.
- Belsky, J. (2001). Developmental Risks Associated with Early Child Car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2, 845-860.
- Capaldi, D. M., & Clark, S. (1998). Prospective Family Predictors of Aggression Toward Female Partners for At-risk Young men. *Developmental Psychology*, 34(6), 1175-88.
- Coie, J. D., & Dodge, K. A. (1998).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146-58.
- Dionne, G., Tremblay, R., Boivin, M., Laplante, D., & P russe D. (2003). Physical aggression and Expressive Vocabulary in 19-Month-Old Twins. *Developmental Psychology*, 39(2), 261-273.
- Elliott, D. S. (1994). Serious violent offenders: Onset, developmental course and termination: the

-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1993 Presidential Address. *Criminology*, 32, 1-2.
- Fagan, J. (1990). The intervention between child sex and temperament in predicting behavior problem of preschool-age child in day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59, 1-9.
- Goldsmith, H. (1992). *The toddler behavior assessment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al, University of Oregon, Eugene, OR.
- Hart, C. H., Dewolf, D. M. Wozniak, P., & Burts, D. C. (1992). Maternal and paternal disciplinary styles: Relations with preschoolers' playground behavioral orientations and peer status. *Child Development*, 63, 879-892.
- Hart, C. H., Nelson, D., Robinson, C., Olson, S. F., & Mcneilly-Chque, M. K. (1998).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Russian nursery-school-age children: Parenting style and marital linkage. *Developmental Psychology*, 34, 687-697.
- Haskins, R. (1985). Public aggression among children with varying day care experience. *Child development*, 56, 689-703
- Hay, D. F., & Ross, H. S. (1982). The social nature of early conflict. *Child development*, 53, 105-113.
- Hyde, J. S. (1984). How large are gender differences in aggression? A developmental meta-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0, 722-736.
- Kagan, J. (1974). Development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in the study of aggression. In J. deWit & W. W. Hartup (Eds.), *Determinants and origins of aggressive behavior*. The Hague: Mouton.
- Kochanska, G. (1993). Toward a synthesis of parental socialization and child's temperament in earl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4, 325-347.
- Kochanska, G. (1997). Multiple Pathway to Conscience for Children With Different Temperaments: From Toddlerhood to Age 5.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228-240.
- NICHD (1999). Child Care and Mother-Child Interaction in the First 3 Years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35(6), 1399-1413
- Park, S. Y., Belsky, J., Crinic, K., & Putnal, S. (1997). Infant emotionality, parenting, and 3-year inhibition: Exploring stability and lawful discontinu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218-227.
- Parke, R. D., & Slaby, R. G. (1983). The development on aggression. In E. M. Hetherington(Eds.), P.H. Mussen (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development, 547-642. NY: Wiley. discontinu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218-227.
- Phillips, D., McCartney, K., & Scarr, S. (1987). Child-care quality and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3, 537-543.
- Rubin, K., Stewart, S., & Chen, X. (1996). Parents of aggressive and withdrawn children. In M.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l.1*, 255-284. nj: LEA.
- Rubin, K. H., Hastings, P., Chen, X., Stewart, S., & McNichol. K. (1998). Interpersonal and Maternal Correlates of Aggression, Conflict,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Toddlers. *Child Development*, 69(6), 1614-29.
- Russel, A., Hart, C. H., Robinson, C. C., & Olsen, S. F. (2003). Children's sociable and aggressive behavior with peers : A comparison of the US and Australia, and contributions of temperament and parenting styl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1), 74-86.
- Tremblay, R. E.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during childhood :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29-141.
- Tremblay, R. E., Boulerice, B., Harden, P. W., McDuff, P., Perusse, D., Pihl, R. O., & Zoccolio, M. (1996). Do children in Canada become more aggressive as they approach adolescence? I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and Statistics Canada (Eds.). *Growing up in Canada: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children an youth*. Ottawa: Statistics Canada.

(2005년 2월 4일 접수, 2006년 5월 8일 채택)